유적지로 파고 든 나주박물관 소통형 역사공원 되다

유적지 위에 조성된 국립나주박물관은 지난 1년동안 머물고 싶은 전원형 박물관으로 자리 잡았다.

국립나주박물관 개관 1주년

영산강 유역 반남 고분군 위 건립
개방형 수장고·스마트폰 전시안내
1박2일 캠핑 역사여행 등 인기
18일까지 15만200여명 방문

첫돌 기념 '영상으로 되살린…'전
22일부터 내년 1월 28일까지
석굴암·의궤·고려청자 등 조명
29일 서울 바로크 관현악단 초청

석굴암 본존불.

4~5세기 무렵 형성된 나주 반남 고분군들은 나주를 고고학적으로 중요한 요충지로 만들었다. 신촌리 9호분에서 발굴된 금동관 일괄 유물을 비롯해 최근에 정촌 고분에서 출토된 가장 완벽한 형태의 백제계 금동신발까지 잇따라 모습을 드러낸 유물들의 장식성과 풍부함에서 볼 수 있듯이 반남 고분군을 중심으로 한 나주는 영산강 유역 옹관 고분 문화권의 중심지였다.

특히 영산강 유역 고분들은 커다란 옹관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국내 다른 지역과도 뚜렷한 차별을 보이고 있다. 고고학자들은 이 지역 고분을 우리나라 서남부 일대에서 성장했던 마한의 중심세력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 출토되고 있는 유물들은 이 세력이 백제와 중국, 일본 등과 관계를 맺었던 흔적을 보여주기도 한다.

국립나주박물관(관장 박중환·이하 나주박물관)이 오는 22일 개관 첫돌을 맞는다. 지난해 11월22일 개관한 나주박물관은 영산강 유역에 남아있는 선사와 역사시대 유적지, 그중에서도 영산강 유역 고분유적의 중심지인 반남 고분군 위에 세워지면서 '유적지로 파고든 박물관'이라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개관 전에는 광주 등 인근 도시와 다소 떨어져 있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하지만 개관 이후 나주박물관은 자연과 역사 속에 자리 잡은 열린 문화공간이라는 특성을 활용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과 전시를 통해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다. 나주박물관을 찾은 관람객도 개관 이후 지난 18일까지 모두 15만282명에 달한다.

관람객들에게 가장 사랑을 받았던 프로그램은 가족과 함께 1박2일 캠핑을 하면서 역사·자연 체험 시간을 보내는 '1박2일 달빛 역사여행'과 '뮤지엄 스테이'다. 주말을 이용해 나주박물관 뒤편에 마련된 캠핑카에서 숙식하며 '마한시대 유물'을 중심으로 영산강 유역의 역사와 문화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색적인 프로그램으로 꾸며졌다. 또 '달빛 아래 반남 고분군 산책하기' '자미산성 등 주변 유적지 탐방' 등도 함께 진행됐다.

또 나주박물관은 국내 최초로 개방형 수장고 시스템을 도입했고, 유물 복원 처리 작업 과정을 공개하는 등 새로운 시도를 했다. 관람객 각자가 가진 스마트폰을 이용한 전시안내시스템도 다른 국립박물관과의 차별화를 위한 노력이었다.

나주박물관은 '고고학 중심의 박물관'이다. 주변의 고분들이 박물관의 전시 유물과 다름없다. 특히 지난해 개관과 함께 95년 만에 고향에 돌아온 국보 제295호 '나주 신촌리 9호분 출토 금동관' 등을 비롯해 영산강 유역 대형 옹관 등과 출토 유물들이 전시돼 있다. 또 개관전 '천년 목사골 나주'를 비롯해 '베트남 고대 문명전' '역사 속의 가족 편지' 등 특별전을 열었다.

나주박물관은 개관 첫돌을 맞아 오는 22일부터 내년 1월18일까지 1주년 기념 특별전 '영상으로 되살린 문화유산'을 진행한다. 특별전은 우리 문화유산을 기록한 영상을 통해 문화재의 이면을 보여준다.

1부 '부처의 미소'에서는 신라 미술 최고의 진수로 손꼽히는 국보 제24호 석굴암을 소개한다. 2부에서는 고려시대 최고의 보물이라 할 수 있는 '천하제일 비색청자'를, 3부 '조선왕조 기록문화의 꽃, 의궤'에서는 영조 35년(1759)에 정순왕후 김씨(1745~1805)를 계비로 맞이하는 혼례식 과정을 영상으로 재현한다. 4부는 '그림 속 조선 풍경, 풍속화', 5부는 '오늘날의 고고학'이다.

오는 29일 오후 2시에는 나주박물관 이벤트홀에서 국내 정상급 오케스트라인 '서울 바로크 오케스트라 초청 공연'을 개최한다.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12번 가장조'를 피아니스트 최문영이 협연하며 최영섭의 '그리운 금강산', 피아졸라의 '리베르 탱고'와 '항구의 여름' 등을 들려줄 예정이다.

앞서 오는 22일 오후 2시에는 박물관 강당에서 '국립나주박물관후원회' 창립총회가 열린다. 국립나주박물관회 창립준비위원회(위원장 김영일 전남대 교수)는 지난 9월 첫 모임을 갖고 창립을 준비해왔으며, 현재 회원은 200여 명에 달한다.

앞으로 ▲국립나주박물관 학술자료 및 조사연구 후원 ▲전통문화 보급을 위한 사회교육 및 국제교류 ▲회원 및 관람자,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적인 문화사업 등을 추진하게 된다. 문의 061-330-7800.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정해선 작 '그리움'

남도의 산하…그리고 가족

광주무등사진동우회원전…22~28일까지 금남로 우영갤러리

사진은 삶과 터전을 기록한다. 그리고 우리의 기억을 다시 끄집어내게 한다.

50여 년 가까운 세월 동안 남도의 풍광과 삶을 기록해온 광주무등사진동우회(회장 정해선)가 오는 22일부터 28일까지 금남로 우영갤러리에서 '제47회 광주무등사진동우회원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는 강종봉, 박근형, 정해선, 안상철, 이경섭, 이우영, 이형주, 이동명, 윤장현(명예회원) 등 회원 9명의 작품 30여 점을 전시할 예정이다.

지난 1년간 회원들이 촬영한 남도의 산과 강, 들, 생태계 그리고 가족의 모습이 작품에 담겼다.

1968년 광주·전남 지역에서는 최초로 설립된 사진 동아리인 광주무등사진동우회는 그해 창립전을 시작으로 해마다 정기전시회를 열고 있다. 또 각종 사진 촬영과 회원 교류를 통해 지역 사진 발전에 힘써왔다.

정해선 회장은 "지역 사진 발전을 위해 오랫동안 유대관계를 쌓아오며 활동한 회원들의 작품에 담긴 지역에 고민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문의 010-3625-4514.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세월무상' 광주인권영화제 오늘 개막

23일까지 광주영상복합문화관 G시네마

제19회 광주인권영화제가 20일~23일까지 광주영상복합문화관 G시네마에서 열린다.

지난 1996년 시작된 광주인권영화제는 국가와 기업 대신, 개인과 시민 사회의 후원을 받아 진행하는 영화제로 인권 교육과 표현의 자유 실현, 대안 영상 발굴 등을 모토로 하고 있다.

올해 행사의 주제는 '세월무상'이다. 개막작은 세월호참사국민대책위 미디어팀이 제작한 다큐 '세월호를 향한 기억투쟁' 〈사진〉을 선정했다.

'불온시대' 섹션에서는 GM 대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그린 '니가 필요해', 제주 4·3부터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운동에 이르는 제주 현대사를 다룬 '제주의 영혼들', 서울역에 살고 있는 이들의 이야기를 담은 '구름다리' 등이 상영된다.

'핵분열 시대' 섹션에서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의 모습을 담은 다큐 '푸른 우정-가건물의 졸업식', '힘차게 살아가고 싶다-후쿠시마를 떠나 새로운 인생을 꾸리는 가족의 1년', '4년째 후쿠시마, 그리고 핫스팟' 등을 만날 수 있다. 그 밖에 레즈비언 커플의 결혼을 그린 '퍼스트 댄스', 광주지적장애인복지협회 광산구지부 성인발달장애인들의 삶을 그린 '한바퀴 더' 등을 만날 수 있다.

폐막작은 경남 밀양 송전탑 반대 투쟁을 담은 박배일 감독의 '밀양 아리랑'이다. 영화 상영 후에는 관객과의 대화 시간도 마련된다. www.gjhrff.com. 문의 070-4153-752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